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은 할 수 없이 투표장에 내 물렸을 뿐, 내 손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한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이 아니라 국회와 국회의원에 식상해 하고 그들을 불신하게 된지는 이미 오래다.

투표도 국회의원으로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편 가르기 정치에 편승하거나 죄악은 피하고 싶다는 고육지책으로 투표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18대 총선 때에 비해서 무소속 당선자가 그 10분의 1인 3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혐오하는 정파에 반대하기 위해 덜 미운 쪽에 투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권자들로선 총선의 과정이 지루했고 투표는 고역이었다. 연초부터 그 잘난 출판기획회로부터 시작된 총선분위기는 꽂고 새우는 호시절, 환희의 봄마저 국민에게서 빼앗아갔다. 그들이 벌이는 온갖 추태는 그야말로 꼴불견이었다. 폐거리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풍토 아래서 공천이 필수이다 보니 줄서기 공천 자체가 권력 투쟁의 출발이었다.

이에 대해 연극인 이운택이 한 말이 재

미있다. “우리 연극인들은 정치의 계절이 되면 무기력해진다. 정치가 더 연극적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코미디가 아닌데 너무 웃기고 재미있다. 정치인들을 보면 연극인들 만큼의 진정성도 없다. 우리도 캐스팅할 때 그렇게는 안 한다. 여야가 공천

만을 대변하면서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준법지원 입법 같은 것을 서슴없이 해치우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자체가 하나님의 이익 집단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렸고, 그들의 세비를 늘려나가고 있다.

국회의원 1인당 국가예산으로 지출되는 돈이 연 6억7000만 원이나 된다. 세비 1억 4000만원,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 등 보좌진의 연봉으로 3억 9000만원, 각

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봄싸움은 세계 언론의 토픽이 된 지 오래다. 해마다 전기톱으로 문고리를 부수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국회 안에서 최루탄까지 터뜨리는 것 이 대한민국 국회다.

국회 폭력은 일상화 되었으며 저질 발언과 막말은 디반사다. 법을 만드는 국회

에서 새해 예산안이 법정기일 안에 합의 통과된 일이 거의 없다. 국회의원에게는 청렴의 의무가 있지만, 국회의원이 청렴하고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2.9% (2010년)로 다른 어떤 기관이나 직업군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최악의 수준이다. 탄돌이 국회로부터 특히 심화된 국회의 저질성은 더해지면 더해졌지 19대 국회라고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축소하거나 국회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은 그 어디에서도 없었다. ‘국민생각’이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한 것이 전부다. 그게 김재동이 “정치가 코미디를 그만두면 코미디도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19대 국회의 보수와 혁신경의의 의석비 157대 140은 벌써부터 죽고살기식 이념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언론인〉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을 생각한다

하는 걸 보면 저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다. 배우들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 정도로 왔다 갔다는 안 한다.”

정치란 다양한 계층의 서로 상충하는 권

익을 공동선의 방향으로 조정, 국민을 통합하는 능력 또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

다운 정치인이란 상반하는 양쪽에서 던지

는 돌에 맞아 피를 칠칠 흘리면서도 “이길

이 정의의 길이다. 공동선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도 가장 상반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악사법 하나를 처리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법조인의 이익

종 수당 및 지원금으로 1억4000만 원, 200여 가지의 각종 특권과 특혜,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냈으면 65세 이후 매달 12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어있다.

작년에만 해도 배우들에게 월 4만 원,

자녀에게 2만 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

는 새 규정까지 만들어 행겼다. 자동차 유

지비와 기름값도 나온다. 45평짜리 방도

공짜로 받는다. 국회의원이 이 나라에서

최고의 직업인 산다. 국회가 제 일을 다

하지 못해 세비는 꼬박꼬박 나온다.

몇 년 전 외국잡지가 세계에서 가장

무법적인 의회의 하나로 대한민국 국회를

꼽았다고 한다. 각종 정치쟁점 법안의 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걸 보면 저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다.

배우들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 정도로 왔다

갔다는 안 한다.”

정치란 다양한 계층의 서로 상충하는 권

익을 공동선의 방향으로 조정, 국민을 통합

하는 능력 또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

다운 정치인이란 상반하는 양쪽에서 던지

는 돌에 맞아 피를 칠칠 흘리면서도 “이길

이 정의의 길이다. 공동선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도 가장 상반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악사법 하나를 처리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법조인의 이익

종 수당 및 지원금으로 1억4000만 원, 200여 가지의 각종 특권과 특혜,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냈으면 65세 이후 매달 12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어있다.

작년에만 해도 배우들에게 월 4만 원,

자녀에게 2만 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

는 새 규정까지 만들어 행겼다. 자동차 유

지비와 기름값도 나온다. 45평짜리 방도

공짜로 받는다. 국회의원이 이 나라에서

최고의 직업인 산다. 국회가 제 일을 다

하지 못해 세비는 꼬박꼬박 나온다.

몇 년 전 외국잡지가 세계에서 가장

무법적인 의회의 하나로 대한민국 국회를

꼽았다고 한다. 각종 정치쟁점 법안의 처

카트만두의 한글학교

모두 추억에 젖고 동심으로 돌아간다.

한글학교라고 한글 읽기, 쓰기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전체 교과과정은 국어, 국사, 수학, 과학, 음악, 그리고 한자 시간으로 짜여 있다. 나는 3월에는 중학생 반을, 4월부터는 고1 반을 담당하는데 연간 지도계획서와 월 학습 계획서를 제출하라니 긴장되고 부담도 되었다. 중학생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뒤지고 학습 자료를 모으면서 어떻게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시간을 만들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까 고민했다. 고교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배운 과학 지식이 있어서 제법 많이 통하고 대학이라는 관문이 눈에 보여서인지 관심을 보이니까 가르치기가 중 학생보다 훨씬 수월하다.

첫 시간에 아이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

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

이로부터 3월 학기에 맞추어 훌자서 유학

온 아이들도 여럿 있다. 미국에 훌자서 조기

유학을 가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한글학교 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네덜란드에 그런 아이들이 있는 줄은 몰랐다. 이곳은 미국보다 생활비와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마약이나 학교 폭력 등의 위험성이 높아 브루나이, 영어와 네덜란드까지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미국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유학을 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꿈을 물었더니 자가 지망생, 반

기문 사무총장을 존경한다는 외교관 희망자,

화가, 음악가, 기타리스트를 비롯한 예술가,

선교사, 고교학자, 사업가, 수의사, 한의사,

교사 등 다양하다. 자기의 꿈이 자꾸 바뀐다

고 대답하는 아이들과 꿈이 없다고 대답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 나는 꿈을 바꿀 수 있고, 꿈이 없는 사람은 없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 즉 미정일 뿐이라고 말해주었다.

교민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사람이나 네덜란드에 있는 아이들도 집에서는 모두 한국어를 쓴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어와 네덜란드는 자연스레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또한 학교에서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헤네어, 중 한 두 개를 선택으로 배우고 있다. 학교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아이들이 있고 이런 다민족 환경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무렵 네 개 또는 다섯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제는 국내보다 환경은 열악할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란다. 길 거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소개가 다 함께 달리고 있다. 그리고는 나뭇길을 잔뜩 싱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운 코끼리까지 달리는 것을 본다. 따라서 아이들은 더 세계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되지만 자신들의 뿌리를 알지 못하면 정체성을 잃고 방황할 수도 있다. 한글학교는 청소년들이 또래끼리 어울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말로 함께 공부하고 노는 중에 자신들은 네덜란드에서 사는 한국인임을 상기시킨다. 이것이 바로 교민들이 한글학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애착과 기대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며 지원하는 이유일 것이다.

〈파티너의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불량 복씨 파동이 준 교훈

피해자원 등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던 한해였다.

이를 계기로 국립 종자원은 한층 더 분발해 올해는 ‘복씨 밭발 불량’ 없는 무사고의 해를 목표로 종자생산·수매·공급까지 단계별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미리 제거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농업인이 복씨 밭에 걱정함이 없이 우량종자를 공급받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은 우선 재배과정에서 종류가 다른 배 품종이 섞였는지 여부와 병해충 발생, 벼 쓰러짐 상태 등을 확인하는 포장검사를 실시하고, 종자수확 후에는 사전에 검사시료를 채취해 실험실에서 밭발을 피해립 등을 겸사해 합격한 종자만 영농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해온 것이다.

수매한 배가 수분이 많을 경우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조기를 통해 일정한 수분(15%) 이하로 건조해 최신식 저장고에서 최적상태로 보관하고, 종자수요 능가의 신청상황에 따라 정밀정선 후 생산된 제품을 다시 한번 검사해 우수종자만을 보급종으로

공급한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도 종자사고를 겨우잡아 넘겼던 품종이 섞였는지 여부와 병해충 발생, 벼 쓰러짐 상태 등을 확인하는 포장검사를 실시하고, 종자수확 후에는 사전에 검사시료를 채취해 실험실에서 밭발을 피해립 등을 겸사해 합격한 종자만 영농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해온 것이다.

아울러 보급종자 농가에 공급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예상되는 민원 등에 적극 대처하고, 종자품위 저하 등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인들도 벼를 잘 키우기 위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지원장〉

목발 짐은 환자 안태우려 빈 택시 절반이 지나친다

등산을 갔다 오던 중 발목 인대를 다쳤다.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승용차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만원 버스에 목발을 짚고 올라타기도 힘들고, 그 안에서 버티기도 힘들 것 같아 택시를 타고 집과 병원을 오가기로 했다.

하지만 출근 시간에 택시를 잡기 위해 대

로에 나가보니 정말 이쁜 사람만 서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택시를 잡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다 보니 택시들에 대한 울화통이 슬슬 눈노를 변해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목발을 짚고 서 있으니 빈 택시를 대비해 놔려서 병원에 도착해서도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들어가 보자. 물리치료

료실은 그야말로 다리가 부러졌거나 뻔한 환자들, 허리를 다쳤거나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 등 허체어와 목발 등 각종 보조장구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가는 곳 아닌가.

따라서 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물리치료실은 당연히 1층에 있어야 하는데 이 병원에는 크게 둑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지하 1층에 있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동

시설

지방자치 개편, 주민 여론 무시해도 되나

정부가 서울특별시와 광주 등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에선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천늘음’